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쌀 편중 해소 · 농가 소득 증대 전략작물 지원

정읍시가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다변화를 위해 논에 콩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공동경영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교육·컨설팅부터 시설·장비, 사업다각화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동영농 면적이 10ha, 논 타작물 재배면적 5ha 이상, 참여농가 15인 이상,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농업공동경영체(농업법인, 농협조직 등)이다. 해당 사업은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등 세 가지 분야로 구분돼 지원된다.

교육·컨설팅 분야에 선정된 경영체는 개소당 3000만원을 지원받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한 전문 컨설팅 업체의 재배 기술 교육, 경영체 운영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4억6000만원 투입

어선 108척에 장비 지원

부안군이 어선 조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 4억6000만원을 투입 관내 어선 108척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장비 123대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선원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고, 최근 잇따른 어선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 규모를 예년 대비 대폭 확대함으로써, 어업인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올해 2월 어선장기 지원사업 공모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수협 중앙회 공동구매계약 체결을 통해 품질이 우수·가격이 저렴한 장비를 대폭 내습기 이전 적기 공급,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명품리조트 조기 착공 행정절차 이행

고창군·모나용평, “사계절 누리는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복합 리조트로 만들 것”

‘스키장의 대명사’ 모나용평(주)이 시행사를 맡고 있는 고창테마파크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고창군과 모나용평(주) 등에 따르면 현재 리조트 사업관련, 전북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등 19개 부문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 건축심의 및 구조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앞서 모나용평은 지난해 10월29일 고창군으로부터 심원면 만돌리 일대 100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곳에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중대형급 휴양형 콘도미니엄 약 470실을 비롯해 18홀 골프장, 약 700석의 컨벤션센터를 건설한다.

특히 모나용평은 전라관에 분양호보관을 마련하여 전라도의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초기 성공적인 콘도 분양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모나용평 임학은 대표는 “고창군과 긴밀히 협업체 준비에 만반을 기하겠다”며, “서해안의 아름다운 노을과 생



태 갯벌을 테마로 한 다양한 복합 체험 콘텐츠 구상을 마쳤으며, 이를 통해 호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이 고창종합테마파크에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건립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지고 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개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고창군의 카누 경기장 건립사업은 지역 스포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카누슬라럼(Canoe Slalom)은 초당 2m 이상 급류에서 바위, 제방 등 장애물과 기류를 통과하는 경기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종목이지만, 국내에는 아직 국제 규격 경기장이 없다. 카누슬라럼센터가 건립되면 국제 대회를 유치하고, 선수 훈련과 유소년을 발굴하는 등도 가능해진다. 대회가 없을 때는 인공 래프팅장으로 활용돼 수상 스포츠의 저변도 확대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우수’

공약이행도 · 2024년 목표달성도 등 5개 분야 총점 83점 넘어

고창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2025년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우수(A)등급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2024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자료를 모니터링해 분석한 결과다.

평가항목은 △공약이행도 △2024년 목표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

일치도 5개 분야로 고창군은 합산 총점이 83점을 넘어 우수등급인 A를 받았다.

민선8기 고창군은 ‘주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넘치는 고창’을 위해 80개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완료 15건, 이행 후 계속추진 33건, 정상 추진 32건으로 80%(의) 이행률을 보이며 순항중이다.

고창군은 내실있고 신뢰받는 공약사업을 위해 심덕섭 군수 주재로 분기별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

최와 연 2회 공약이행평가단 점검회의, 매니페스토실천 특강 개최 등 공약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용자지원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확대, 농기계구입지원 확대,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보조금 확대 등 군민 맞춤형 공약사업이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결과는 공직자와 30명의 군민들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이 함께 노력하여 공약의 완성도를 높인 결과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익스트림 관광형 왕복4차선 노을대교 설치 필요

일반국도77호(부안~목포~과주)의 유일한 단절구간 해소와 익스트림 관광형 왕복 4차선 노을대교 건설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으로 생활인구를 유입하여 일자리 창출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서해안의 숙원사업이다.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국도77호 노을대교를 왕복2차선 교량으로 연장 8.87km, 교량폭 10.0m로 2030년까지 총사업비 4,294억

원으로 추진중인 왕복2차로 교량은 단순 차량 통행용으로 진행중이나,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익스트림 관광형 왕복4차선 노을대교 건설로 개선해야 한다고 부안군 밝혔다.

정읍~부안간 일반국도30호 왕복4차선과 정읍~고창간 일반국도22호 왕복4차선의 중간지점인 일반국도77호(부안~고창) 노을대교는 왕복4차선으로 건설되어야 도로의 병목현상

이 예방되기 때문이다.

그간의 추진경과는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2022년 4월 입찰방식 결정 및 기본계획 수립, 2022년 6~11월 단독입찰 유찰(총 4회), 2023년 4~12월 입찰 방법 변경 (일괄 → 설계, 시공 분리발주) 및 기본설계, 2024년 8~12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총사업비(4,294억원) 기획재정부 확정되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20일 이 시장과 농업정책과 직원 20여명은 소성면 가지 재배 농가를 방문해 지주대 세우기 작업에 참여하며 농가에 실질적인 힘을 보탰다.

‘두 팔 걷고’ 현장 지원 나서

이학수 정읍시장, 농업정책과 직원 20여명과 가지 재배 농가 작업

이학수 정읍시장이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직접 찾아 두 팔을 걷어붙였다.

20일 이 시장과 농업정책과 직원 20여명은 소성면 가지 재배 농가를 방문해 지주대 세우기 작업에 참여하며 농가에 실질적인 힘을 보탰다.

이번 일손돕기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한 농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농가는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현지 사정으로 입국이 지연돼 농작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날 이 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 나와 직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

며 지주대를 세우는 작업에 힘을 보탰고, 작업 후에는 농가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가주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지연돼 막막하던 차에 이학수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직접 와서 도와줘 큰 도움이 됐다”며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린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됐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학수 시장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단순한 노동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지속가능성에도 연결돼 있다”며 “시가 앞장서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유호연 부시장, 생활현장 ‘춤춤 행정’ 실천

정읍시 유호연 부시장이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현장을 찾아 생활속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을 실천했다. 유 부시장은 지난 19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문화·관광·복지 공간 14개소를 직접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유아부터 어르신 관광객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머무를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단순한 현장 시찰을 넘어 이용자 입장에서 실질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유 부시장은 △정읍시예술화관 △용산호 미르샘분수 △국민여가캠핑장 △기적의놀이터 △내장산문화광장 음약분수 및 천수공간 △동화마을 테마파크 및 익스트림스포츠시설 △정읍시립박물관 △문화유산방문자센터 △



목재문화체험장 △임산물체험단지 차향타운 △정읍시립요양병원 △치매안심센터 △정읍시립요양원 등 총 14개소를 차례로 점검했다.

정읍시예술화관과 시립박물관 등 문화시설에서는 관람 동선과 접근성을 고려한 안내 체계 정비와 냉난방, 조도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예술화관의 경우 무대 상부 구조물 낙하 방지를 위한 정기 점검 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예방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